

(주)대원사료



▲ 전남 함평군 장년리에 위치한 (주)대원사료 공장전경.

사료가 아닌 식품을 제조한다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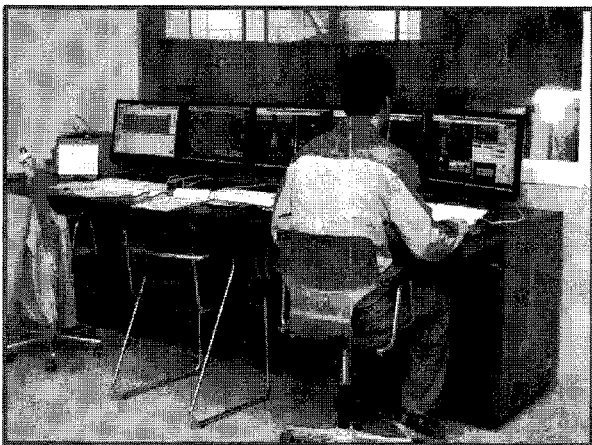
▲ 이광하 대표이사

이번호 회원사 탐방은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에 위치한 (주)대원사료를 찾아가 보았다. 네시간 반여를 달려가자 호남평야지대에는 여기저기에 추수를 기다리는 보리들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기자가 함평을 찾았을 때는 나비축제가 막 끝난 상태여서 열광적이었던 축제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난 4월 16일자로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주)대원사료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



◆ 시작부터 소독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 전 생산공정을 컴퓨터를 통해 확인·제어하고 있다.

아기와의 같다. 그러나 새내기로서의 대원사료는 시작 전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에서 필요한 사료물량

은 월간 15만톤 정도이다. 이중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은 7만톤에 불과하다. 대원은 나머지 8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소화한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여 지금은 주문량이 밀려있어 연일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가 찾은 날도 공장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또한 군신항과 인접해 있는 대원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이익 증대를 고려하여 현재의 함평에 자리를 잡았다고 공장의 입지조건에 대해 임승균 지원부장은 말한다.

대원사료공장의 전 공정은 최첨단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공장의 완전자동화로 Clean


공장을 실현하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사료 공급을 통하여 양축농가에게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광하 대표이사는 “배합 사료공장으로써 사료(FEED)가 아닌 식품(FOOD)을 제조한다는 생각으로 제품생산에 임하고 있다”힘주어 말한다.

한편 대원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싸일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계절 온도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등으로 인한 품질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과감히 외부시설인 싸일로를 비롯한 공장 외부를 BOX포장하여 사계절 온도변화에도 원료곡물의 품질변이 없이 열처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공정 완전 포장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광하 사장은 회사에 앉아 있는 날이 드물다. 매일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들을 관리하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원사료는 일산능력 250톤 규모로써 주력 생산품목은 오리사료 53%, 양계사료46%, 양돈사료1%로 구성돼 있으며, 판매지

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사료 생산비중이 큰 것은 나주지역에 오리 사육농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대원사료가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의 사료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吉> 



◆ 농가로 배달될 싱싱한 제품들이 차에 실리고 있다.



◆ 대원사료는 시작부터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